'XIAOMI ROAD FC 042 X 2017 충주세계무술축제' 23일 개막

'XIAOMI ROAD FC 042 X 2017 충주세계무술축제'가 9월 23일 막을 올린다. 로드 FC와 충주시와 상호 협업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로드 FC 대회를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에 열게 됐다. 사진제공 | 로드 FC

아오르꺼러, 충주서 한판 붙는다

〈중국 최고 MMA스타〉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유도 윤동식 한·일전
여성파이터 박정은·박시우 타격대결도 관심
장익환-에밀 아바소프 1경기 KO 승부 예고

'XIAOMI ROAD FC 042 X 2017 충주세계무술축제'가 9월 23일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최고의 MMA스타 아오르꺼러(22, XINDU MATIAL ARTS CLUB)와 암바왕 윤동식(45, 우정교역),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36, 팀포스) 등이 출전한다. 로드 FC 사상 처음으로 충주시에서 열리는 대회다. 로드 FC와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협업해 2017 충주세계무술축제 기간에 대회를 개최했다.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과 유도 레전드 윤동식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한일전을 펼친다. 아톰급의 미래를 책임진 꼬마늑대 박정은과 리틀 함서희 박시우의 대결도 주목할만하다. 이들은 여성 파이터 가운데 최상급의 타격실력을 갖춰 화끈한 경기가 예상된다.

중국 헤비급 초신성 아오르꺼러와 일본 격투기의 살아있는 전설 미노와맨도 출전해 팬들의 관심을 끈다. 아오르꺼러는 명현만과의 대결 때 나온 로블로 해프닝으로 잘 알려진 파이터다. 당시 Fox Sports, 블리처리포트, ESPN 등 세계적인 매체들이 아오르꺼러의 불운을 보도했다. 급소를 맞고 눈물을 흘리며 케이지를 뒹굴었던 그가 회복 이후 처음 출전하는 경기다.

많은 기대 속에 시작을 알리는 첫 경기도 화끈한 대결이 예상된다. 케이지 위의 낙무아이 장익환과 러시아 파이터 에밀 아바소프가 1경기로 맞붙는다. 장익환은 무에타이, 에밀 아바소프는 우슈 산타 베이스로 타격에 자신이 있다. 모두 타격전을 즐겨 한명은 KO로 쓰러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로드 FC 파이터 중에는 충주에 좋은 기억이 있는 선수들도 많다.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은 충주를 대표하는 MMA 선수다. 고향이 충주다. 올해 10년차 소방관인 그가 처음 소방관 제복을 입은 곳도 충주다. 합기도 선수로 충주무술축제에 참가한 적도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남다르다.

160kg 킥복서 김창희는 충주세계무술축제 출전을 기대한 적도 있다. 결국 출전하지 않았지만, 팀 동료들의 출전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 현장을 함께 방문했을 때였다.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직접 선수로 케이지에 오른다.

꼬마늑대 박정은도 충주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3년 전인 2014년. 충청북도지사배 전국킥복싱대회 -52kg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3년 전의 좋은 기운을 이어가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김연경 14득점…남북대결 3-0 완승

김수지, 북한 주포 정진심 효과적 차단
박정아·김희진도 적재적소 득점포 가동
한국, 세계선수권 본선 향해 힘찬 시동

역시 한국 여자배구의 대들보였다. 김연경이 20일(한국시간) 태국 나콘빠톰에서 열린 북한과 세계선수권 아시아지역 예선 B조 1차전에서도 팀 내 최다 14득점(3서브)을 기록하며 팀의 세트스코어 3-0 완승을 이끌었다. 스포츠동아 DB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본선을 향해 힘찬 첫발을 뗐다.

한국은 20일(한국시간) 태국 나콘빠톰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아시아지역 예선 B조 1차전에서 북한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0(25-17 25-23 25-19)의 완승을 거두고 첫 단추를 깔끔하게 끼웠다. 한국은 같은 조에 속한 북한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이란과 풀리그를 통해 2위 안에 들어야 2018년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행 티켓을 따낼 수 있다.

한국은 김연경(상하이)이 팀 내 최다 14득점(3서브)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김수지(IBK기업은행)도 13점(5블로킹)을 따내며 든든하게 뒤를 받쳤다. 특히 김수지는 양 팀 최다 16득점을 기록한 북한 정진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눈도장을 받았다. 박정아(도로공사·9득점)와 김희진(기업은행·8득점)도 적재적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1세트를 25-17로 손쉽게 따낸 한국은 2세트 들어 북한의 공세에 고전했다. 10-11에서 김연경의 3연속 서브득점을 앞세워 승기를 잡았지만, 북한의 끈질긴 추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23-23에서 심판 합의판정 끝에 24-23 세트포인트에 도달했고, 김수지가 상대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하며 어렵게 세트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3세트 한때 8-14까지 끌려가며 어려움을 겪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북한의 세트플레이를 막지 못하며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그러나 중반 이후 특유의 높이를 살리면서 상대 공격을 연달아 차단했고, 16-17에서 김수지의 블로킹으로 마침내 동점을 이뤘다. 19-19에선 김연경과 하혜진의 연이은 오픈공격을 앞세워 21-19로 앞서나갔고, 수비 조직력이 와르르 무너진 북한의 코트를 맹폭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은 21일 휴식을 취한 뒤 22일 같은 장소에서 이란과 2차전을 갖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팀당 비디오판독 최대 10번…V리그의 오만

취재파일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프로스포츠 생존과 직결된 '스피드업'
판독 확대는 신경전 도구 변질 될 수도

과거는 채널의 시대였다. 채널 돌리기 귀찮아서라도 보던 콘텐츠를 그냥 봤다. 그러나 지금은 리모컨의 시대 혹은 클릭의 세상이다. 조금만 지루하다 싶으면, 손가락 한 번 까딱 해버리는 것으로 다른 재미를 찾아간다.

이런 환경에서 스피드 업은 프로스포츠의 생존과 직결된다. 어떻게든 경기시간을 줄여 관중과 시청자의 몰입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이다. 그런데 이런 시대정신과 역행하는 곳이 있다. KOVO(한국배구연맹)와 V리그 구단들이다.

19일까지 '2017 천안·넵스컵 프로배구대회(이하 KOVO컵)' 13경기 중 2시간을 넘긴 경기만 5개에 달한다. 여자부 GS칼텍스는 14일 도로공사전을 2시간3분 동안 하더니 18일 IBK기업은행전은 무려 2시간22분을 끌고 갔다. 남자부 삼성화재도 13일 대한항공전 2시간14분, 19일 한국전력전을 2시간13분을 소진했다.

아직 전력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KOVO컵부터 이렇게 풀 세트 접전(총 6경기)이 비일비재한 것은 그만큼 전력평준화가 잘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V리그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 내포하는 시그널을 대하는 KOVO와 일부 구단들의 무심함은 딴 세상 사람들 같다.

KOVO와 구단들은 KOVO컵에서 비디오판독 횟수를 대폭 늘리는데 합의했다. 지난 시즌 5세트 스페셜 판독을 포함해 팀별 최대 5회로 제한했던 판독 신청기회를 이번에는 '세트 당 1회, 오심이나 판독불가 시 추가 1회 발생'으로 바꿨다. 즉 팀당 최대 10번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합치면 20번이다. 판독 시간에 평균 2분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40분 이상이 판독에 소비될 판이다. 가뜩이나 2시간 넘는 경기가 속출할 상황에서 판독 시간마저 이렇게 대폭 확대되면 어지간한 야구경기 시간에 필적할 판이다.

게다가 비디오판독은 경기의 흐름을 끊는다는 치명적 폐해도 안고 있다. 이 마당에 KOVO와 구단 들은 동일 랠리에서 비디오판독을 팀이 서로 할 수 있는 '추가판독'까지 허용해 놨다. 쉽게 말해 한 팀이 네트 터치로 판독을 걸어서 오심을 따내면, 상대 팀이 스파이크 인-아웃으로 판독을 신청해 다시 엎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판독이 감독끼리의 신경전 도구로 변질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배구의 인기가 올라가서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현장 감독들마저 더욱 승패에 함몰된 형국이다.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배구경기가 늘어지고, 끊어지는 것은 눈 감아버린 셈이다.

KOVO와 구단들은 '왜 배구를 하는가'라는 근원적 고민을 성찰할 때다. 오직 이기는데 급급해 팬을 망각한다면, V리그의 오만함은 심판 받을 것이다. 10월 14일 V리그 개막까지 바로잡을 시간은 남아 있다.

한국 남·녀 골프 전설을 만난다… 오늘 제네시스 챔피언십·내일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티오프

'거장' 최경주·양용은, 14년 만에 국내무대 빅뱅

최경주 컷 통과땐 30회 연속 신기록
우승자엔 PGA나인브릿지 출전권도

최나연·박성현, 인비테이셔널 출전
박세리, 해설위원으로 후배들 응원

한국남녀골프를 대표했던 전설들이 나란히 국내무대에서 팬들과 뜻 깊은 추억을 나눈다. 주인공은 '탱크' 최경주(47)와 '여왕' 박세리(40). 두 명의 레전드는 각각 선수와 호스트 자격으로 후배들과 함께 초가을 필드를 수놓는다.

●최경주의 제네시스 챔피언십

한국남자골프의 상징 최경주는 9월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 72·7366야드)에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5월 SK텔레콤 오픈 이후 4개월 만에 국내 투어에 나서는 만큼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신기록 달성 여부다. 최다연속 컷 통과 여부가 가장 궁금하다. 최경주는 2002년 코오롱 한국오픈부터 무려 29개 대회 연속으로 컷 통과를 하며 KPGA 최다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 기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겸했기 때문에 국내에선 해마다 2~3개 대회밖에 나서지 않았지만, 16년 동안 기복 없이 플레이했다는 점만으로도 박수 받을만하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면 김형성(37)을 제치고 신기록을 작성한다.

1라운드 대진 역시 흥미진진하다. 최경주의 첫 맞상대는 바로'호랑이 사냥꾼'양용은(45)이다. 두 사람이 코리안투어 같은 조에서 라운드 한 마지막 기억은 2003년 SK텔레콤 오픈 최종라운드다. 14년 만에 국내무대에 나란히 서는 두 거장은 베테랑 김형성과 함께 갤러리를 기대하게 만든다.

KPGA 최다상금이 걸려있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9월 20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다. 대회 전날 진행된 포토콜에서 최경주(맨 왼쪽)와 양용은(왼쪽 2번째) 등 주요 출전선수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KPGA 최대규모의 상금이 걸린 메이저급 대회다. 총상금은 15억원, 우승상금 3억원이다. 대회 우승자에겐 10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PGA 투어 CJ컵@나인브릿지 출전권도 준다. 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노승열(26), 페덱스컵 포인트 89위에 빛나는 김민휘(35), KPGA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10명도 빠짐없이 출전한다.

●박세리의 인비테이셔널

같은 기간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 72·6628야드)에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7억원·우승상금 1억4000만원)이 막을 올린다. 2014년부터 박세리의 이름을 내걸고 새로 닻을 올린 뒤부터 이른바 '세리 키즈'의 우승으로 화제를 모았다.

박성현(24)과 장하나(25) 등 어릴 적 박세리의 플레이를 보고 골프선수의 꿈을 키웠던 선수들이 챔피언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선 역대 우승자뿐만 아니라 반가운 얼굴도 함께한다. 주인공은 오랜만에 KLPGA 투어에 출전하는 최나연(30)이다. 2014년 9월 KDB대우증권 클래식 이후 3년만의 국내 경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통산 9승에 빛나는 최나연이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박성현도 모처럼 팬을 만난다. 그는 박세리 인비테이셔널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015년 대회 우승에 이어 지난해 최종라운드에서 8언더파의 코스레코드를 새로 써낸 흐뭇한 기억이 있다.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의 아픈 기억을 잊고 2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호스트 박세리는 이번 대회 해설위원 자격으로 나서 후배들의 플레이를 응원할 계획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꿈을 선물한 축구스타 베컴 잉글랜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한국을 찾아 유소년 선수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9월 20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앞 청계광장에서 마련된 축구클리닉에 참석해 추억을 나눴다. 베컴은 "짧은 아시아 투어 일정이었지만 오늘 아이들과 함께 공을 갖고 뛰면서 놀았던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면서 즐거워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